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마가단 주(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광산산업단지로 -

<표지 1> 마가단시



<표지 2> 마가단 주의 자연



<표지 3> 칼림 강 수력발전소



<표지 4> 마가단 주의 '비탄의 마스크'



< 목 차 >

서문

I. 종합개관

1. 개관
 - 1.1 위치
 - 1.2 일반개황
2. 자연환경
 - 2.1 지리
 - 2.2 기후
 - 2.3 식생
3. 주 상징
 - 3.1 주 기
 - 3.2 주 문장

II. 상세개관

1. 역사
 - 1.1 형성
 - 1.2 발전
2. 정치
 - 2.1 행정부
 - 2.2 주 의회
 - 2.3 대통령 선거(2012년)
3. 경제
 - 3.1 경제 개관
 - 3.2 지역총생산(GRP)
 - 3.3 주요 산업
 - 3.4 국가의 재정지원
 - 3.5 대외교역
4. 사회
 - 4.1 인구 및 민족 구성
 - 4.2 행정구역
 - 4.3 교육
5. 문화
 - 5.1 문화개황

5.2 원주민과 전통문화

5.3 문화유적과 관광지

6. 한국과의 관계

6.1 마가단 주의 현지 동포 현황

6.2 수산물 생산과 수출현황

<참고문헌>

<사진 출처>

<표 출처>

<서문>

마가단 주는 러시아의 북동쪽에 위치한 연방주체이다. 위로는 북극지역, 동남쪽 해안선은 오흐츠크 해와 인접해 있다. 마가단 주의 기후는 열악하다. 여름은 습하고 6~7개월이나 지속되는 겨울은 혹독하게 춥다. 그 결과 러시아 연방주체들 가운데 11 번째로 면적(462,464km²로 한반도의 약 2배)이 넓지만, 인구는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약 147,000명에 불과하다. 인구밀도가 1평방킬로미터 당 0.31명에 지나지 않는다.

<서문 1> 마가단 주의 표지판과 사슴 동상



마가단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답변은 부재하다. 그러나 그 명칭이 시베리아 토착소수민족인 에벤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이렇듯 마가단 주의 지리적/문화적 역사는 오래 되었다. 에벤인이 동시베리아에 고루 분포되기 시작한 것은 최소 10세기 무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가단 주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가 넘어서이다. 처음 마가단 주는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유형지로 선택되었으며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일군 포로를 수용하는 포로수용소로 쓰였다.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마가단 주는 유형지로서 최적화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50년대 수용소가 폐쇄되기 전까지 수백만 명이 이곳의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유형생활을 보내야 했다. 그 흔적이 현재 마가단 주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인 '비탄의 마스크'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유형 중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96년 이 건축물이 지어졌다. 혹독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늦게나마 추모하기 위함이다.

<서문 2> 마가단 주 콜리마에 처음 정착한 유형수들의 금 채굴 장소



처음에는 유형지로 인식되었지만, 점차 개발이 진행되면서 마가단 주는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1920년대 유리 빌리빈, 1930년대 에두아르드 베르진의 노력으로 개발과 건설을 위한 트러스트가 만들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국가 기반시설이 놓이면서 마가단 주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마가단 주의 광물자원과 수산자원이 주목을 받았다. 마가단 주에는 은, 주석, 텅스텐, 구리, 몰리브덴, 석탄과 석유 및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 특히 금이 많이 채굴된다. 이를 바탕으로 마가단 주는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명태, 청어, 대구, 넙치, 연어, 게, 오징어, 새우 등의 수산물 역시 넉넉하다. 수산물은 러시아 내수시장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서문 3> 마가단 주의 광산업



1980년대 마가단 주의 경제는 전성기를 구가했으며, 산업 및 농업 생산, 운송과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인구도 증가했다. 그러나 1990년대 구소련 붕괴 이후 혼란으로 말미암아 개발이 잠시 중단되었으며, 지역경제의 붕괴와 인구 유출로 주의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풍부한 금 매장량과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서서히 경제적 도약을 준비 중에 있다.

I. 종합개관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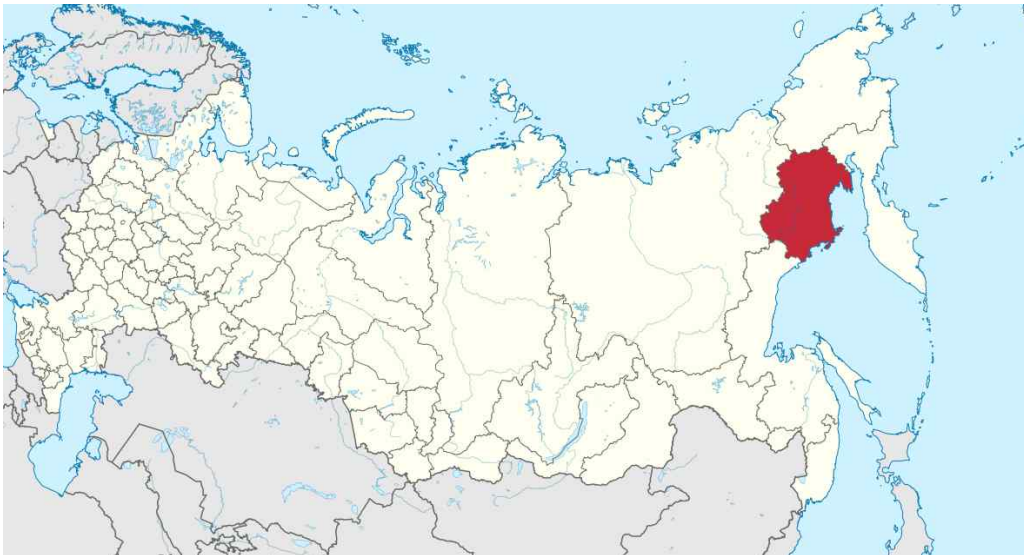
마가단 주(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의 면적은 462,464km²로 한반도의 약 2배에 이르며, 러시아 전체 면적의 2.6%에 달한다. 마가단 주는 주 영토의 1/3이 북극권, 4/5가 산지, 3/4이 툰드라 지대이다. 일부 토지개량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하다. 1년 중 6개월~7.5개월이 겨울철이다. 마가단 주는 한랭성 기후이며, 기온은 1월 평균 -21°C, 7월 평균 +12.6°C이다.

2010년 러시아 인구조사에 따르면, 마가단 주의 인구는 156,996명이었으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145,570명으로 나타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의 81.49%가 러시아인이고, 6.28%는 우크라이나인, 1.68%가 에벤인(Эвены), 나머지가 타타르인(Татары), 벨라루스인(Белоруси), 코랴크인(Коряки), चु치인(Чукч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도(州都)는 92,711명이 살고 있는 마가단 시이다(2017년 자료). 주요 도시로는 올라(Ола), 수수만(Сусуман), 팔랏카(Палатка), 야고드노예(Ягодное) 등을 꼽을 수 있다.

마가단 주는 20세기에 정치범이나 강력범 등의 수용소와 유형 장소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후 1953년 12월 3일 주 행정 단위로 편성되었으며, 1956년에는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강제노동정책을 완화하였다.

1.1 위치

<그림 1> 마가단 주의 위치



마가단 주는 러시아 연방의 북동쪽에 위치한 연방주체이다. 위로는 북극지역과

접해 있다. 북쪽은 추랏카 자치구, 동쪽은 캄차카 변경, 서쪽은 사하 공화국, 남쪽은 하바롭스크 주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동남쪽 해안선이 오호츠크해와 접해 있는 마가단 주는 극동연방관구에 속한다.

1.2 일반개황

<표 1> 마가단 주 개황

공식명칭	마가단 주(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주도(主都)	마가단(Магадан)
소속 연방관구	극동연방관구(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경제지구	극동경제지구(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айон)
면적	462,464km ²
성립일	1953년 12월 3일
인구	139,034명 (2021년 자료)
민족구성	러시아인(81.49%), 우크라이나인(6.28%), 에벤인(1.68%), 타타르인(0.93%), 벨라루스인(0.74%) 등
공용어	러시아어
주지사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 페초니(Владимир Фетрович Печёный)
상원의원	아나톨리 이바노비치 시로코프(Анатолий Иванович Широков) 세르게이 파블로비치 이바노프(Сергей Павлович Иванов)
지역총생산 (GRP)	1억 1707만 루블 (2018년 기준)
주요산업	광업, 수산업
주요자원	금, 은, 주석, 텅스텐, 구리, 몰리브덴
주요도시	마가단(Магадан), 올라(Ола), 수수만(Сусуман), 야가드노예(Ягодное), 팔랏카(Палатка)
행정구역 구성	1개의 주도, 8개 군

2. 자연환경

2.1 지리

마가단 주는 러시아연방 북동부에 위치한다. 북쪽은 추랏카 주, 동쪽은 캄чат카 변경, 서쪽은 사하 공화국, 남쪽은 하바롭스크 주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동남쪽 해안선은 오호츠크해와 접하고 있다. 마가단 주의 최남단은 올리스키 군(Ольский район)에 위치한 알레비나 곶(мыс Алевина), 최북단은 모우스타흐(Моустах) 강 상류지점, 최서단은 수수만스키 군(郡)(Сусуманский район)에 위치한 히니케(Хинике) 강 상류지점, 최동단은 세베로-에벤스키 군(郡)(Северо-Эвенский район)에 위치한 케갈리(Кегали) 강의 지류이다.

마가단 주는 영구동토지역에 속한다. 마가단 주 내에는 동토가 도처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동토의 두께와 온도는 다양하다. 가장 두꺼운 동토지대는 마가단 주의 북쪽과 북서쪽에 위치한 산맥에 있다. 반대로 오호츠크 해와 접하는 남쪽의 연안지역은 동토의 두께가 상당히 얇으며, 때때로 동토가 없는 지역도 존재한다.

<그림 2> 마가단 주의 지도



<그림 3> 오호츠크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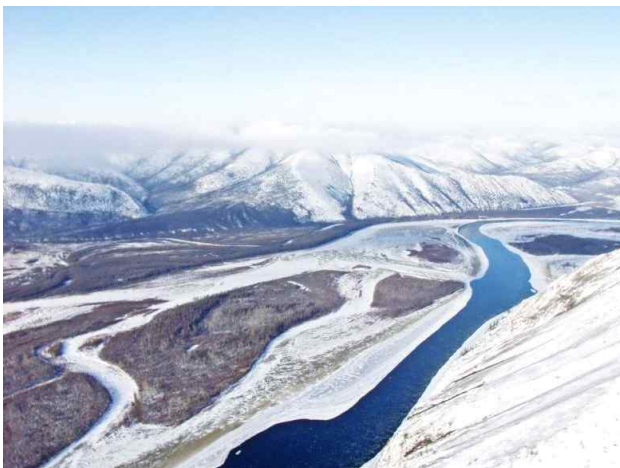


2.2 기후

마가단 주 지역은 지형이 특이하고 영토가 넓은 관계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 내륙에는 툰드라 산림지대가 있으며, 남동쪽은 오호츠크 해의 차가운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다.

마가단 주의 기후를 한 마디로 압축하면, 여름은 과도하게 습하고 겨울은 혹독하게 춥다는 것이다. 마가단 주의 겨울은 일반적으로 6~7.5개월 동안 지속된다. 보통 10월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며, 긴 겨울 동안 폭설과 함께 강한 바람이 동반된다. 해안지역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눈보라가 30~40일 정도 지속되며, 내륙 중심지에서도 10~20일 정도 계속된다.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날씨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마가단 지역의 기업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풍속은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내륙지역은 연평균 풍속이 2~3m/초이며, 최대풍속은 7m/초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해안지역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풍속이 40m/초를 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강하게 바람이 분다.

<그림 4> 사하 공화국과 마가단 주에 걸쳐 있는 영구동토층의 칼림 강



2.3 식생

마가단 주는 주로 툰드라와 타이가 지역이다. 마가단 주의 남쪽은 자작나무와 버드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펼쳐져 있다. 마가단 주에는 순록, 눈 산양, 사슴과 갈색곰, 오리, 바다 새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마가단 주와 접하는 오토츠크 해에는 명태와 청어, 대구, 넙치, 연어 등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으며 해안에는 게와 조개의 풍부한 어장이 위치한다.

<그림 5> 마가단 주의 풍경



<그림 6> 순록 썰매를 타는 모습



3. 주 상징

3.1 주 기

마가단 주 의회는 2001년 12월 26일에 주 기와 상징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다. 마가단 주를 상징하는 깃발은 폭과 높이의 비율이 2:3인 직사각형 모양이다. 바다를 상징하는 남색과 하얀색이 물결 모양으로 아래에 위치하고 윗부분에는 붉은 색 바탕에 상단 왼쪽에 마가단 주의 문장이 들어가 있다. 붉은 색과 아래 남색 물결의 비율은 4:1이다. 마가단 주 의회와 정부기관은 주 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된다. 그 외에도 주의 주요 행사와 기념할 만한 행사가 있을 경우 주 기를 사용한다.

<그림 7> 마가단 주 기



3.2 주 문장

마가단 주의 주 문장은 Y자로 세 부분이 나뉘진 방패 모양을 하고 있다. 상단은 붉은색, 하단의 왼쪽은 하늘색, 오른쪽은 남색으로 칠해져 있다. 상단은 붉은색 바탕에 광부들이 쓰는 망치와 곡괭이, 금괴 2개, 은괴 하나가 그려져 있다. 좌측 하단의 하늘색 바탕에는 수력발전소와 비행기가, 우측 하단의 남색 바탕에는 세 마리의 황금 물고기가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마가단 주의 주요 산업인 광업, 수산업, 수력발전, 교통을 상징한다.

<그림 8> 마가단 주 문장



II. 상세개관

1. 역사

1.1 형성

‘마가단’이란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일설에 의하면 에벤인의 ‘몽고단’(Монгодан, 바다의 퇴적물)에서 온 것이라고도 하고, 다른 설에 따르면 ‘몽고트’(Монгот, 말라버린 나무)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명칭의 유래를 에벤인의 말에서 찾는다는 것은 이곳의 토착민이 시베리아 소수민족임을 짐작케 한다.

마가단 주 지역에 남아 있는 드루차크-베트렌니(Дручак-Ветренный)나 네글린카(Неглинка) 같은 고대 유적은 구석기 시대부터 이 지역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중석기 시대의 유적도 아우라(Аура), 렌치크 1(Ленчик I), 네글린카(Неглинка), 옴치크-2(Омчик-2) 등에 남아 있으며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고대 코랴크인 문화의 흔적도 보존되어 있다.

러시아 카자크인의 첫 번째 원정이 있기 전인 17세기에는 이 지역에 주로 통구스인이나 유카기르인(Юкагиры), 에벤인(Эвены)이 정착하여 거주했다. 이들은 사냥과 어로에 종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몬 데즈네프(Семён Дежнев)는 1649년 아나디르(Анадыр) 요새 근처에 월동기지를 건설했다. 1697년에는 카자크인 아타만 아틀라소프(Атаман Атласов)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아바친스코이 곶(Авачинской губ)에 저장창고와 요새를 구축했다. 그 후 1740년 비투스 베링(Битус Беринг)과 알렉세이 치리코프(Алексей Чириков)의 캄чат카 탐험대가 도착했다. 마가단 지역의 본격적인 탐사는 1920년대에

콜리마(Колыма) 과학탐사원정대의 도착과 함께 시작되었다.

20세기 초에 마가단 주와 추콧카 주는 행정적으로 연해주(Приморская область)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09년부터 캄차카 주에 편입되었다. 1921년 1월 극동공화국(ДВР)이 수립되면서 캄차트 현에 이 지역이 포함된다. 1922년 11월에는 극동공화국이 극동 주(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область)로 변경되어 러시아공화국(РСФСР)에 소속된다. 1926년 1월에는 이 지역에 극동 변강(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рай)이 형성된다. 1932년 10월경 하바롭스크 주 소속이었던 캄차카 주가 부활되는 시점에 생산과 도로건설을 위한 산업단지인 ‘달스트로이’(Дальстрой)가 들어서면서 마가단 주가 만들어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마련된다. 1930년대에는 금을 비롯한 광물을 개발할 목적으로 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1930년 12월에 추콧카 지역에 있었던 추콧카 민족관구는 하바롭스크 주로 이전되는 1951년 5월까지 직접적으로 캄차카 주에 남아 있었던 반면, 마가단 지역은 1939~1940년에 이미 ‘달스트로이’의 관할권 아래로 이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적국의 군인을 수용하기 위한 포로수용소가 위치하였으나, 전쟁이 끝난 이후 1950년대에 폐쇄되었다.

마가단 주는 1953년 12월 3일에 하바롭스크 주에서 분리되었고, 1992년 6월에는 추콧카 지역이 마가단 주에서 분리되면서 독자적인 주가 되었다.

<그림 9> 마가단 주 말댁크(Мальдяк) 마을



1.2 발전

마가단 주를 포함하는 콜리마 지역의 산업개발은 유리 빌리빈(Юр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Билибин, 1901~1952)과 함께 시작된다. 1928년에 유리 빌리빈이 주도하는 탐사대가 올리 마을 근처에 도착하였다. 강력한 개척정신으로 무장한 그들은 마가단 지역에서 금, 주석, 석탄 및 건축 자재를 비롯한 많은 광물을 발견했다.

<그림 10> 빌리빈 탐사대의 모습



1931년 11월 이 지역에 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또한 소련의 정치가 에두아르 드 베르진(Эдуард Петрович Берзин, 1894~1938)은 마가단 지역에 ‘달스트로이’라 불리는 생산과 도로건설을 위한 산업단지를 만들었다. 그 이후 이 산업단지를 통해 공장과 발전소, 항만 및 도로를 건설하였다. 1932년에는 나가예프(Нагаев) 지역에 항구를 건설하였으며, 1933년에는 나가예프 항구로 화물이 하역되었다. 이 시기에 건설되기 시작된 650km 길이의 콜리마 고속도로는 1941년 완공되었다.

구소련 시기에 마가단 주는 금 생산지로 유명했다. 마가단 주에는 항만뿐만 아니라 약 4,000km의 도로가 건설되고, 1,650km 길이의 송전선이 부설되었다. 그 결과 광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6대의 굴착기와 600대 이상의 불도저, 1,000대의 트랙터와 5,000대의 자동차가 투입되었다. 1967년에 마가단 주는 노동, 경제, 문화건설 분야에서 이룬 성과로 소련 최고의 영예인 레닌 훈장을 받았다.

1980년대 마가단 주의 경제는 전성기를 구가했으며, 산업 및 농업 생산, 운송과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인구도 증가했다. 그러나 1990년대 구소련 붕괴 이후 혼란으로 말미암아 개발이 잠시 중단되었으며, 지역경제의 붕괴와 인구 유출로 주의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에서 금 생산지로서의 유명세를 지니고 있다. 1991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2013년 6월에 첫 발전에 들어간 우스티-스레드네칸스카야 수력발전소(Усть-Среднеканская ГЭС)는 현재 확장 공사 중에 있는 등 마가단 주의 경제활동과 성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림 11> 우스티-스레드네칸스카야 수력발전소



2. 정치

2.1 행정부

마가단 주 행정부는 마가단 주 국가권력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마가단 주 정부는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법과 러시아연방 기타 법령의 실행을 보장하고 마가단 주의 정관과 마가단 주의 법률과 기타 규정법을 실행한다. 마가단 주 행정부의 수장인 주지사는 5년 임기로 선출되며 2회 연임이 가능하며 마가단 주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림 12> 마가단 주지사 블라디미르 페초니(2013년~2018년)



블라디미르 페초니는 1949년 6월 20일에 체르놉치(Черновцы) 시에서 태어났다. 체르노비츠키 국립대 인문학부를 졸업하고 농촌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다. 1978년 극동으로 이주하여 하바롭스크 변경 오호츠크스쿠 군 노보-우스티스카야 중학교에서 문학과 러시아어를 가르쳤으며 오호츠크스쿠에서 기숙학교 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84년부터 마가단에서 거주하였으며 학교 교장, 검찰관 등을 역임하고 1990년에 마가단 시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다. 3년 후에는 마가단 시 행정부 부시장이 되었고 1997년부터는 제 1부시장이 되었다. 2004년 10월에 마가단 주 행정부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블라디미르 페초니는 정열적이고 권위가 있으며 조직력이 뛰어나서 마가단 지역 발전을 적극적으로 견인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 블라디미르 페초니는 마가단 시의 시장에 재선되었다.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페초니를 마가단 주 주지사로 임명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가단 주 역대 주지사를 살펴보면, 빅토르 그리고리예비치 미하일로프(Виктор Григорьевич Михайлов, 1991~1996년), 발렌틴 이바노비치 츠벳코프(Валентин Иванович Цветков, 1996~2002년),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 두도프(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 Дудов, 2003~2013년)이다. 이 중에서 발렌틴 이바노비치 츠벳코프는 2002년 모스크바 출장 중에 권총으로 살해되었는데 아직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현재 마가단 주지사는 세르게이 콘스탄티노비치 노소프로 2018년 전임 주지사였던 블라디미르 빼트로비치 빼춘니가 자기 개인 사유로 사임하자 2018년 5월 28일 세르게이 콘스탄티노비치 노소프가 다음 시장선거때까지 임시 시장직에 임명되었다. 이후 2018년 9월 9일 노소프는 약 81%의 득표를 얻어 시장으로 당선되고 취임했다.

2.2 주 의회

마가단 주 의회는 마가단 주의 입법 기관으로 1994년 6월 28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러시아연방 헌법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마가단 주의 법령과 기타 법규들로 조정된다. 마가단 주의 의원은 마가단 주에 거주하는 러시아 연방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며 18세 이상의 주민들이 선거권을 가진다. 마가단 주의 의원은 21세 이상의 러시아연방 헌법에 상응하는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나갈 수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그림 13> 마가단 주 의회 의장 세르게이 아브라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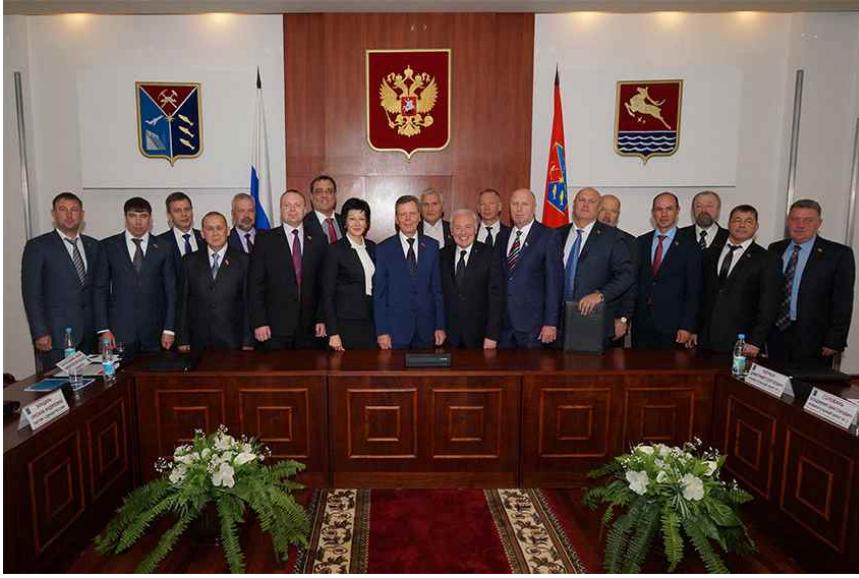


2015년 9월 13일, 제6대 마가단 주 의회가 출범했다. 주 의회 의장은 세르게이 아브라모프(Сергей Васильевич Абрамов)이며, 마가단 주 법률로 규정된 의원은 의장을 포함해서 22명이다. 각 정당별 의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제6대 마가단 주 의회 정당 별 의석수

정당	대표자	대의원 수
통합러시아당(Единая Россия)	옥사나 본다리(Оксана Бондарь)	17
러시아연방공산당(КПРФ)	세르게이 이바니츠키(Сергей Иваницкий)	2
러시아자유민주당(ЛДПР)	세르게이 발루이(Сергей Валуй)	1
정의러시아당(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이고르 노비코프(Игорь Новиков)	1

<그림 14> 마가단 주 의회의 모습



2.3. 대통령 선거(2012년)

2018년 3월 18일 시행된 러시아 대통령선거에서 블라디미르주의 주민 총 107,63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 중 실제로 행사한 표는 102,626표이다. 주의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72.30%로 압도적이고, 이는 러시아 연방 전체에서의 푸틴 득표율 76.69%에 조금 낮은 편이다. 반면 파벨 그루딘은 14.05%로 연방 평균인 11.77%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표3. 2018년 러시아 연방 대통령선거 후보별 득표율_마가단주]

정당	후보자	마가단주	러시아 연방
통합러시아당	블라디미르 푸틴	72.30%	76.69%
러시아 공산당	바벨 그루딘	14.05%	11.77%
러시아 자민당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	8.38%	5.65%
국민의 주권당	크세니아 소브착	1.36%	1.68%
사과당	그리고리 야블린스키	6.57%	0.67%
총 투표율		67.5%	
사표율		32.5%	

출처:

http://www.vybory.izbirkom.ru/region/region/izbirkom?action=show&root=1&tvd=100100084849066&vrn=100100084849062®ion=0&global=1&sub_region=0&prver=0&pronetvd=null&vibid=100100084849066&type=227(검색일:2021.11.28.)

<그림 15> 선거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마가단 주의 선거구



3. 경제

3.1 경제 개관

마가단 주는 극동연방관구에 속하며, 러시아의 12개 경제지구 중 극동경제지구에 포함된다. 극동경제지구는 영토상으로는 러시아의 36.4%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6,263,219명(2012년 기준)으로 러시아 전체 인구의 4.38%에 불과하다.

마가단 주의 주요 산업분야는 광업, 전력 생산과 식품업 등이다. 또한 교통과 통신, 어업과 수산업이 발달해 있다. 생산구조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채금 분야이다. 금을 포함한 여러 광물과 오토츠크 해의 풍부한 수산자원은 마가단 주가 가지는 매력적인 투자 부문이다. 하지만 인구가 적고, 기후조건이 열악하며, 지형이 복잡하다는 점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3.2 지역총생산(GRP)

2015년 지역총생산은 1246억 루블이었으며 1인당 지역총생산은 846,400루블이었다. 마가단 주에 대한 외국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2015년에 550억 루블의 투자가 유입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산업 생산은 106.5%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러시아 전체의 평균 9.9%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그 중에서 광물자원 채굴은 107.8%를 차지하여 러시아 평균 7.5%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지수이다.

2015년에 주 예산 중 광산채굴에 부과한 조세는 31억 루블에 달했다. 그만큼 이 지역 경제에서 광산채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2015년에는 금의 채굴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은의 채굴은 17.3% 증가하였고 2015년에 1127.5톤을 채굴하여 러시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16> 마가단 주 지역총생산(GRP) 구조(20013년)



- 초록색 - 농업, 임업, 어업(7%)
- 분홍색 - 예산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보건, 교육, 행정(29%)
- 황토색 - 광업(19%)
- 빨간색 - 가공업(14%)
- 노란색 - 무역, 임대, 서비스업(21%)
- 연보라색 - 건설, 교통, 통신(10%)

위의 그림을 보면 마가단 주 지역총생산 구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체의 29%에 달하는 보건, 교육, 행정 분야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단연 광업(19%) 분야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 임대, 서비스업, 건설, 교통, 통신 등의 3차 산업분야가 1차 산업분야(채광업, 농업, 임업, 어업)를 앞지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마가단 주의 산업구조 변화를 예고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3.3 주요산업

마가단 주의 주요 산업 중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광업 분야이며, 그 뒤를 이어 제조업과 전력생산, 가스, 수산업 및 수산물 가공, 교통과 통신, 무역과 도소매업 등 순이다. 그리고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가 행정, 사회보장 기관과 치안 및 법집행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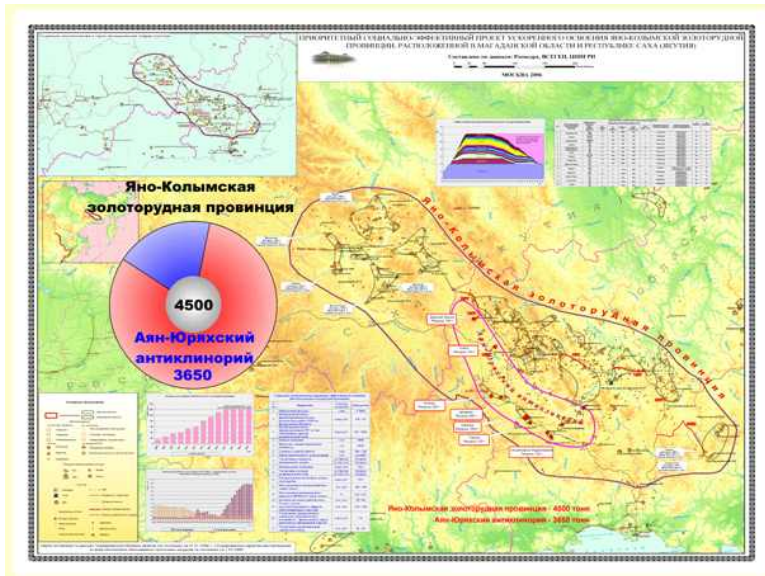
이렇듯 산업의 주된 분야는 광업(금과 은 채굴, 부차적으로는 주석, 텅스텐, 석탄 등)과 어업이라고 볼 수 있다. 채광 산업은 수수만스키 군과 옴숙찬스키 군, 어업은 마가단 시에 집중되어 있다. 마가단 주에는 아르카갈린스카야 수력발전소와 콜림스카야 수력발전소가 있으며, 우스티-스레드네칸스카야 수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

1) 광업

마가단 주에는 금, 은, 주석, 텅스텐, 구리, 몰리브덴, 석탄과 석유 및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마가단 주의 경제는 금과 은 및 기타 비철금속 광산에서 나오는 이익에 힘입은 바 크다. 마가단 주의 금은 상당히 풍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마가단 주에는 총 1,275곳의 금 산지가 있다. 그중 33개는 맥상금광이고 나머지는 사금광이다. 금 매장량은 1,836톤이며, 주요 매장지는 두가트, 룬노에, 줄리에타, 시콜노에 등이다.

마가단 주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14개의 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사하공화국과 마가단 주 경계에 위치해 있는 야노-콜름스카야 금광 지역(Яно-Колымская золоторудная провинция) 개발 사업이다. 추정되는 금 매장량은 4,750톤이며 그 중 50%는 이미 매장량이 확인되었다.

<그림 17> 야노-콜름스카야 금광 지역



마가단 주에서는 2015년 11월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22.8톤의 금과 979.5톤의 은이 채굴되었다. 이 지역에서 2015년 동안 183개 회사가 금 채굴에 참여하였고 그 중에서 130개 회사는 사금 채굴 전문 기업들이었다.

<표 4> 마가단 주 금 채굴량

	년도		
	2013	2014	2015
채굴 금	6.9	9.1	9.245
사금	14.5	15.0	15.261
합계 (톤)	21.4	24.1	24.506

2) 수산업

마가단 주의 지역총생산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8%로 제조업의 70%를 점유한다. 어업은 광업에 이어 마가단 주 경제의 핵심 부분인 셈이다. 2006년 수산업 생산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16억 루블(6000만 달러)이었다. 2006년 당시 마가단 주에서 59개의 수산업체들이 어획 활동을 했으며, 10만 2000톤의 수산물을 채취했다. 마가단 주의 9개 기업이 수산물을 수출했으며, 2005년보다 14% 감소한 3만 4900톤(5100만 달러)을 수출했다. 마가단 주에는 10여 개의 수산물 가공 기업이 있으며, 300여 종의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한다. 마가단 시와 올라 시에 수산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으며, 주로 명태, 청어, 대구, 넙치, 연어, 게, 오징어, 새우 등을 취급한다. 수산제품은 러시아 내수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3) 농업

마가단 주의 길고 혹독한 겨울은 작물재배에 악영향을 미쳤기에 농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마가단 주는 모든 식품의 50% 이상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농업단지에서는 야생동물 포획과 어획량을 통한 식품가공산업과 모피가공이 발달해왔다. 그 외에도 양조장과 가금류 취급공장이 위치해있다.

2015년에 마가단 주는 10,000톤의 감자, 1700톤의 양배추, 100톤씩의 당근과 사탕무를 수확하였으며, 감자의 90%, 채소는 40%이상, 달걀은 70%를 자급하였다.

4) 운송

아누친(Д. Н. Анучин)의 1912년 자료에 따르면, 1911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콜리마 강 하구에 이르는 항로가 개척되었으며, 쇄빙선을 통해서 북극 바다로의 항해가 가능해졌다. 마가단 주 콜리마 강에는 마가단 주의 유일한 해운회사 ‘콜리마’(Колымская судоходная компания, 1993년 창립)가 있으며, 주도인 마가단 시에는 ‘마가단’ 국제공항이 있다. 마가단 국제공항은 국제적 규모의 공항으로서 모든 유형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다. 2006년 전체 화물 운송량은 전년보다 4.7% 감소한 1억 6000만 톤이었고, 총 여객 운송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1180만 명이였다.

마가단 주의 포장도로 길이는 총 2,323km이다. 이 중 330km는 개선이 필요한 도로이고, 아직 철도는 건설되지 않았다.

<그림 18> 항구도시 마가단 시의 야경



3.4 국가의 재정지원

마가단 주 특별경제지역(Особ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Зона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에 관한 연방법이 1999년 7월 8일 선포되어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녔다. 그러나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10% 중 4%만 납부하던 것을 완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마가단 주 특별경제지대 법인 또는 민간기업인 참여자는 연방세 및 관세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참여기업은 2014년까지 소득세를 공제받았다. 특별경제지대 안에서 자체 생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특별경제지대 참여기업이 반입하는 외국제품의 관세 및 기타 지불의무는 면제되었다.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별경제지역 등록기업 수는 총 296개이며, 4개 사는 미국, 중국 등 순수 외국인 투자회사이고, 10여 개는 합작회사, 나머지는 러시아 회사이다. 2009년 전후로 러시아의 모순된 세무정책은 특별경제지대에 참여하는 기업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신규 투자 및 참여자 유치 활동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다. 결국, 주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입주기업들에게 연방세 및 관세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다. 특별법 혜택을 받을 경우, 특구 등록 제조기업이 해외 원자재를 수입하여 현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면 약 30%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5 대외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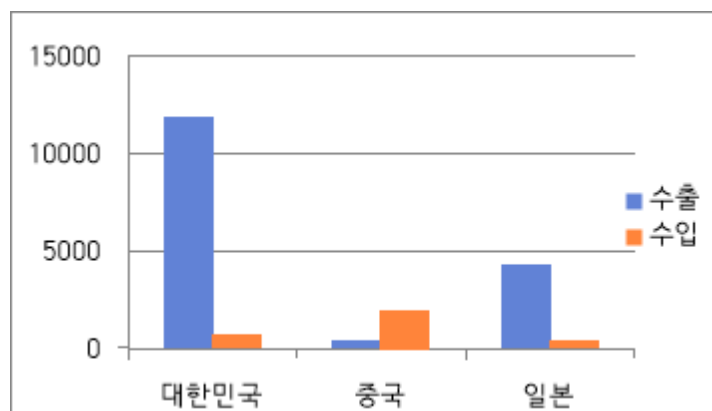
마가단주 소재 10개의 법인기업이 주요 10개국과 대외교역을 하고 있다. 극동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1~9월 마가단 지역의 대외 무역 거래액은 4억6180만 달러에 달했으며 그 중 수출액은 3억9160만 달러, 수입액은 7020만 달러였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카자흐스탄(2억 250만 달러), 대한민국(1억 1,870만 달러), 일본(4,260만 달러), 벨기에(1,730만 달러), 중국(410만 달러), 터키(1억 3,340만 달러) 등이다. 마가단주의 주요 수출 물품은 식품 및 농산물 원료, 광물 제품, 자동차 부품 제품이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EU 국가(2,190만 달러), 중국(1,950만 달러), 대한민국(650만 달러), 이탈리아(410만 달러), 인도네시아(390만 달러), 미국(360만 달러) 등이다. 마가단주의 주요 수입 물품은 화학 공업 제품, 금속제품, 자동차 부품, 기타 상품 관련 제품이다.

[그림19. 마가단주 주요 교역국 수출, 수입량(2021년)]

(단위: 만 루블)



출처: <http://investmagadan.ru/economics/statistics/> (검색일:2021.11.28)

4. 사회

4.1 인구와 민족 구성

■ 인구

마가단주의 인구는 139034명이고 러시아에서 83위다. (2021년 기준) 인구밀도는 0,3명/㎤²이 구성되고 있다. 인구 자연 증가율은 대부분의 다른 연방주체와 마찬가지로 1990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표5. 블라디미르주 인구변동 추이]

(단위:명)

년도	총인구	구분(인구수)		구분(%)	
		도시거주	농촌거주	도시거주	농촌거주
2020년	139592	134124	5468	96	4
2021년	139034	133607	5427	96	4

출처: https://web.archive.org/web/20210319185917/https://rosstat.gov.ru/storage/mediabank/wJkrbrPg/Popul2021_Site.xls(검색일:2021.11.28.)

[표6. 마가단주 경제활동 인구]

(단위: 천명)

년도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수	실업자 수
2020년	85,9(74,0%)	81,1(69,8%)	4,8(5.6%)
2021년	86,5(74.8%)	82,7(71,5%)	3,8(4,4%)

출처:<https://habstat.gks.ru/folder/25721>(검색일:2021.11.28.)

■ 민족구성

주에는 많은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나, 2010년 기준 81.49%가 러시아인이다. 그 밖에 우크라이나인 6.28%, 예벤킨 1.68%, 타타르인 0.9%, 벨라루스인 0.71%, 코라크인 0.57%, 에텔멘족 0.3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민족 간의 갈등은 거의 없는 편이다.

[표7. 블라디미르주 민족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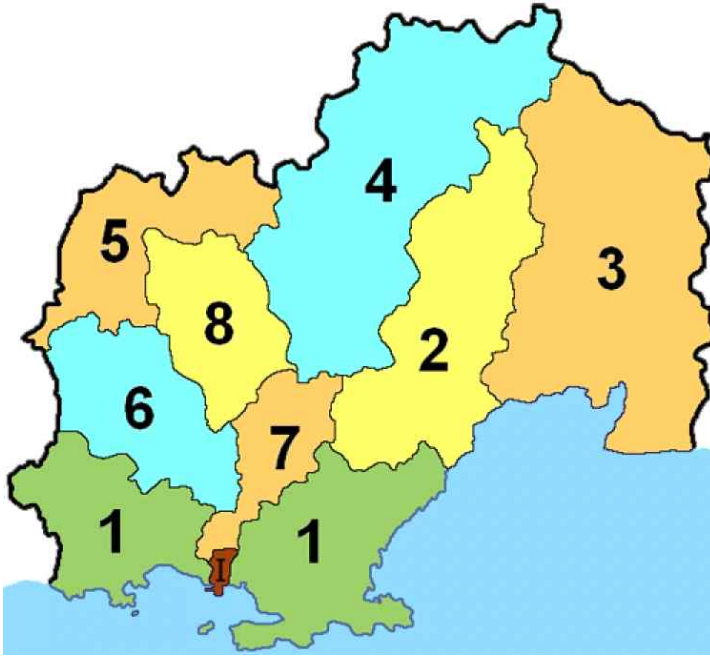
구분	2002년		2010년	
	인구수(명)	비율	인구수(명)	비율
러시아인	146,511	80.18%	127,936	81.49%
우크라이나인	18,068	9.89%	9,857	6.28%
예벤킨	2,527	1.38%	2,635	1.68%
타타르인	2,006	1.10%	1,415	0.90%
벨라루스인	2,169	1.19%	1,121	0.71%
코라크인	888	0.49%	900	0.57%
에텔멘족	643	0.35%	613	0.39%

출처:https://ru.wikipedia.org/wiki/%D0%9C%D0%B0%D0%B3%D0%B0%D0%B4%D0%B0%D0%BD%D1%81%D0%BA%D0%B0%D1%8F_%D0%BE%D0%B1%D0%BB%D0%B0%D1%81%D1%82%D1%8C#%D0%9D%D0%B0%D1%81%D0%B5%D0%BB%D0%B5%D0%BD%D0%B8%D0%B5(검색일:2021.11.28.)

4.2 행정구역

마가단 주의 행정구역은 주(州)와 대등한 위상을 갖는 주도인 마가단 시와 8개의 군으로 나뉜다.

<그림 20> 마가단 주의 행정구역



<표 8> 마가단 주의 행정구역 명칭과 인구(2016년 1월 기준 마가단 주 자체조사)

번호	행정구역 명칭	인구수 (명)	행정중심지
주도(州都)			
I	마가단(Магадан)	99,626	마가단
군(郡)			
1	올스키(Ольский)	9,948	올라(Ола)
2	옴숙찬스키(Омсукчанский)	5,078	옴숙찬(Омсукчан)
3	세베로-에벤스키(Северо-Эвенский)	2,710	에벤스크(Эвенск)
4	스레드네칸스키(Среднеканский)	2,385	세이찬(Сеймчан)
5	수수만스키(Сусуманский)	7,667	수수만(Сусуман)
6	텐킨스키(Тенькинский)	4,272	우스티-옴추크(Усть-Омчуг)
7	하신스키(Хасынский)	6,675	팔랏카(Палатка)

8	야고드닌스키(Ягоднинский)	7,848	야고드노예(Ягодное)
---	---------------------	-------	----------------

<그림 20> 마가단 시



4.3 교육

마가단 주의 현대적 교육은 1934년 첫 시립중등학교가 설립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는 53개의 시립 취학전교육기관, 69개의 시립 초중고교, 17개의 보충 교육기관이 있다. 심리적·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69개의 교정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마가단 주에는 고등교육과 중등직업교육을 담당하는 10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이고 4개는 중등직업교육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3개는 국립이다. 또한 10개의 기초직업교육기관이 있다.

마가단 주에 위치한 대표적 고등교육기관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9> 마가단 주 고등 교육기관

학교명칭	국립/사립	위상	설립연도	위치	본교위치	학 생 수
세베로-보스토츠니 국립대학교(마가단)	국립	대학교	1960	마가단		2693
마가단 경제 대학	사립	대학	1998	마가단	상트페테르	1297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카데미 대학의 분교)					부르크	
모스크바국립법률대학교 마가단 분교	국립	대학교		마가단	모스크바	
러시아기업아카데미 마가단 분교	사립	아카데미	1993	마가단	모스크바	300

<그림 22> 세베로-보스토츠니 국립대학교(마가단 시 소재)



5. 문화

5.1 문화개황

마가단 주에는 22개의 도서관, 9개의 문화회관, 26개의 마을클럽, 21개의 야랑가(원주민들의 원추형 사슴 가죽 천막) 등이 있다. 도서관 중 3개의 주립도서관이 마가단 시에 있다. 또한 마가단 주립 지역학박물관이 마가단 시에 위치해 있으며, 올스키 군에는 올스키 지역학박물관(1976년 설립), 세임찬스키 지역학박물관, 정치적 박해 희생자추모박물관(야고드노에 마을 소재, 1993년 설립) 등이 있다. 마가단 시에는 마가단 국립음악극장과 연극극장, 그리고 35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마가단 주립 인형극장이 위치해 있다.

<그림 23> 마가단 주립 인형극장



<그림 24> 마가단 주립 인형극장의 공연 모습



5.2 원주민과 전통문화

магадан 주에는 에벤인, 코랴크인, 타타르인 등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에벤인은 바이칼 유역과 아무르 강 상류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기원 후 5세기 이전부터 순록을 유목하기 시작했고, 적어도 10세기경에는 동시베리아 전역으로 퍼져 나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마가단 주에서는 토착민족들의 전통문화와 전통축제들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 노력들 중 하나로 고대의 에벤인 명절인 ‘첫 번째 물고기 명절’ 축제를 계승하여 1992년부터 복원하였다. 첫 번째 물고기 잡이를 축하하는 축제 ‘바킬디닥’(Бакылдыдык, 에벤어로 ‘만남’이라는 뜻)가 열리는 날에는, 보통 마가단 주의 전 지역에서 토착 소수민족들이 올스키 군으로 모여드는데 사하공화국에 사는 에벤인 대표자들도 참석한다. 전통적으로 5월 말 바다가 가까운 곳에 모여 함께 물고기를 잡아 겨울용 유콜라(생선을 반(半)건조하여 만든 에

벤인의 전통음식)를 만들고 장을 열어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는 축제인 동시에 일종의 풍어를 비는 축제이다. 축제는 보통 나이가 가장 많거나 존경받는 여인이 주재한다. 축제 동안에는 전통 원무인 ‘헤이데’(Хэйде)를 추기도 하는데, 원무에는 자연, 태양, 땅을 칭송하는 노래가 동반된다. 원무가 끝나면 모두 바닷가에 쌓아둔 장작더미로 모인다. 원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장작더미에 불을 붙인다. 그러면 샤먼이 다가와 북을 치며 악령을 몰아내는 의식을 행한다. 이어서 불에 물고기와 기타 음식을 바치며 모두의 행복과 생업의 성공을 비는 의례가 진행된다. 또한 바닷가에 펼쳐 놓은 그물에 물고기를 바치는 의례도 행해지는데 그물에 음식을 바치면 그물이 많은 물고기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림 25> 바킬디다크 축제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에벤 여성들



<그림 26> 축제를 주재하는 에벤 여성이 모닥불로 정화하는 의식을 하고 있다



5.3 문화유적과 관광지

1) 비탄의 마스크(Маска скорби)

비탄의 마스크는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정치적 억압을 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상징물이다. 조각가 네이즈베스트니(Эрнст Неизвестный)와 건축가 카자예프(Камиль Казаев)의 작품으로 1996년 6월 12일에 완성되었다. 만드는데 4년이 걸렸다. 동상 제막식에서는 마가단 주에서 수백만 명이 정치적 박해 때문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한 옐친의 추모사도 낭독되었다. 이 추모비의 높이는 15미터인데, 사람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으며 주위에는 화강암 바위 덩어리들이 쌓여 있다. 개막식 날에는 그 바위 덩어리 위에 핏방울을 상징하는 붉은 못들이 놓여 있었다.

<그림 27> 비탄의 마스크



2) 브란겔 섬

추코트 해와 보스토츠니-시비리 해 두 바다 경계에 브란겔 섬이 있다. 전체 면적은 7,000 평방킬로미터이다. 이 섬은 사람의 손이 아직 닿지 않은 곳으로 유네스코의 관리 하에 있다. 섬의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 한 명인 러시아의 항해자 브란겔(Фердинанд Врангель, 1796~1870)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림 28> ‘브란겔 섬’



3) 조각상 ‘시간’

마가단 시에 있는 ‘시간’ 조각상은 2013년 9월 7일 개막식을 열었다. 금속 쓰레기로 이루어진 매머드 조각상의 무게는 6톤이다. 마가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 유리 루덴코(Юрий Руденко)의 작품으로 조각상의 높이는 4미터, 길이는 6미터 정도이고 실제 매머드의 크기를 재현하려고 했다고 한다. 루덴코의 구상에 따르면 매머드의 외양은 시계 메커니즘을 떠올리게 하는 작고 다양한 모양의 금속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간의 연관성을 상징한다.

<그림 28> 조각상 ‘시간’



4) 마가단 주립 지역학박물관

이 박물관은 마가단 시에 위치하며 1934년에 개장하였다. 1946년부터 고고학 관련 수집품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전시하였다. 현재 박물관에는 250,000점의 전시물이 보관되어 있으며 20,000점 이상의 과학 도서관 소장품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박물관 영내에서는 강의와 박물관 안내 투어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30> 마가단 주립 지역학박물관



5) 성삼위일체 사원

마가단 시에 위치한 성삼위일체 사원(Свято-Троицкий собор)은 정치적 억압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다. 1985년까지 미완성으로 남아있었으나 2001년에 다시 짓기 시작하여 2008년에 완성되었다. 한참 건물을 짓던 중인 2003년 9월 14일에 첫 예배가 열렸으며, 2010년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가 거행되었다. 엘레나 콜로소바와 블라디미르 콜로소프가 설계와 건축을 맡았다. 극동에서 크기와 아름다움으로는 두 번째로 꼽힌다. 많은 이들이 이 사원을 모스크바의 구세주 예수 사원과 비교하곤 한다. 사원의 높이가 70미터인 것도 비슷하며, 겉모습도 유사하고, 5개의 원형지붕이 있는 점도 유사하다. 종각을 가진 2층 구조의 사원은 각각 2,000명과 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마가단 시의 거의 모든 곳에서 이 사원을 볼 수 있다.

마가단 주의 정교회 신자는 전체 인구의 57.2%, 개신교가 3.6%, 가톨릭교 신자가 2.2%로 조사되었다. 2009년 기준으로 마가단 주에는 24개의 교구, 1개의 수도원(마가단 시에 위치한 스바토-포크롭스키 여자 수도원) 등을 포함하여 57개의 종교 관련 기관이 있다.

<그림 31> 성삼위일체 사원



6) 잭 런던 호수

잭 런던 호수는 마가단 주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며 해수면으로부터 약 800미터 높이에 있다. 이 호수에서는 수영을 할 수 없다. 거의 일 년 내내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호수를 찾기 가장 좋은 시기는 8월과 9월인데 이 시기에 주변 경관이 가장 아름답다. 호수는 특히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전나무 등이 아름답기로 유명하

다. 또한 토끼, 곰, 다람쥐, 담비, 오소리 등이 번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호수의 이름이 잭 런던이라고 붙여졌기에 미국의 유명 작가 잭 런던이 실제로 이곳을 방문한 것이 아닌지 묻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잭 런던은 이 호수를 방문한 적이 없다. 호수의 이름이 잭 런던인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먼 옛날 호숫가에서 잭 런던의 단편집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설은 잭 런던의 송배자이자 연구자였던 한 학자가 호수 이름을 잭 런던이라고 지었다는 것이다.

<그림 32> ‘잭 런던’ 호수



6. 한국과의 관계

6.1 마가단 주의 현지 동포 현황

2010년 마가단 주에 있는 재외국민은 상사주재원과 선교사 2명이고, 재러시아 한인 수는 약 80여 명이다. 주요 고려인단체로 고려인문화센터가 있다.

6.2 수산물 생산과 수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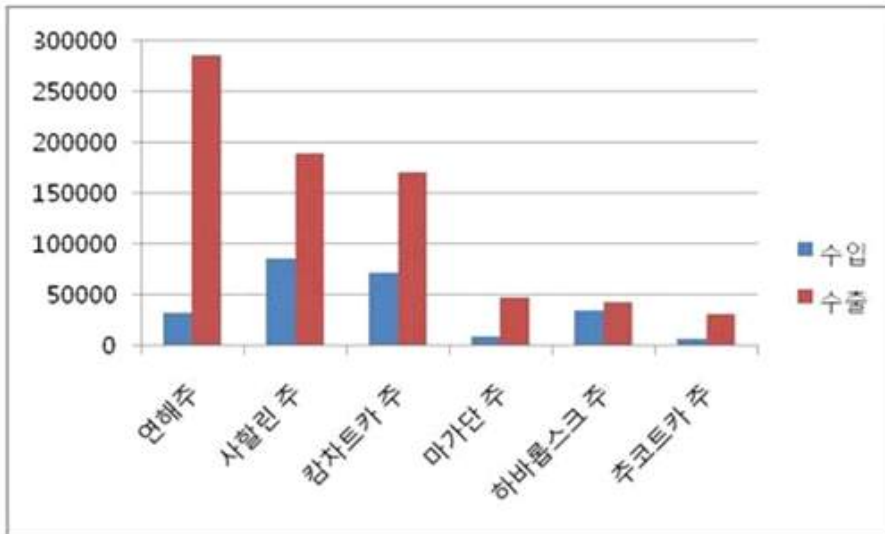
극동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약 60%를 대한민국과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보면 마가단 주의 수산물 수입은 약 9,292톤이며, 수출은 약 47,822톤으로

수출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0> 극동 러시아 수산물 수출입 규모(2011년 1월~9월)(단위: 톤)

	수입	수출
극동 러시아	241,351.77	766,857.35
연해주	32173.23	285,420.30
사할린 주	85538.35	188,363.51
캄차카 주	71870.12	170,469.49
마가단 주	9292.95	47822.92
하바롭스크 주	35093.19	43038.19
추코트카 주	7383.92	31742.94

<그림 33> 극동연방주체 수산물 수출입현황(2011)



■ 대외교역

[표11. 마가단주 수출량]

(단위: 백만 달러)

수출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한민국	174	242	62.6	59.8	69.2	90.8	108
카자흐스탄	131	153	189	177	150	171	213
일본	69.4	45.5	46	104	46.1	43.2	35.4
총합	429	459	331	415	405	410	464

출처: <https://ru-stat.com/date-Y2019-2019/RU44000/export/world>(검색일:2021.11.29)

위 표는 마가단주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금액 총계를 나타낸 것이다. 2014년에는 2억 4200만 달러 수출로 최고점을 찍고 2015년에는 급격히 하락하고 나

서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면 2015년에는 대한민국을 추월했다. 일본은 2016년 빼고 대한민국보다 수출량이 떨어진다.

[표12. 마가단주 수입량]

(단위: 백만 달러)

수입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한민국	9.3	8.4	9.1	6.7	8.4	8.8	9.1
미국	127	15.3	5.8	3.9	4.2	5.1	2.3
중국	23.7	9.4	7.5	21.4	19	21.5	21.8
총합	458	113	45.6	48.3	69.4	65.2	68.8

출처: <https://ru-stat.com/date-Y2019-2019/RU44000/import/world>(검색일:2021.11.29)

마가단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금액 총계를 나타낸 것이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봤는데 증가하거나 하락하는 거 없이 약 700만 달러와 900만 달러를 웃돌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분발이 필요한 거 같다. 미국은 초반에는 많았지만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중국은 왔다 갔다 했지만, 최근에는 올라가는 추세이다.

■ ‘지구 동쪽 끝 미개척지’ 서캄차카 ‘지옥의 문’ 러시아 마가단은 ‘자원 천국’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한국 기업 컨소시엄(지분 40%)은 러시아 로스네프트(60%)와 함께 마가단에서 500km 떨어진 캄차카해상에서 다음 달 본격 탐사시추에 들어간다. 한국 최초 해상유전이 될 서캄차카 시추작업을 위해 지난달 마가단에 보급기지를 열었다. 이곳에서 시추선까지는 뱃길로 꼬박 24시간, 헬리콥터로는 2시간 반이 걸린다. 이곳에서 해저 3000~4000m를 뚫고 내려갈 시추선 ‘두성호’는 이달 초 부산을 출발했다. 강풍을 뚫고 도착한 6000m² 넓이의 항만 보급기지에는 자재 선적작업이 한창이다. 크레인 옆에는 길이 12m, 지름 8~36인치 원통형 케이싱(석유시추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시추공 2개를 포함해 총 8000m를 뚫을 수 있다. 히말라야 높이와 맞먹는 길이다. 5척의 보급선을 통해 자재를 실 새 없이 시추선으로 들여가고 시추과정에서 나온 흙과 폐기물을 실어내오게 된다. 다음 달부터 24시간 근무체제로 들어가면 보급기지 인원만 1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신석우 한국석유공사 커머셜디렉터는 “기후 탓에 6월부터 길어야 10월까지 시추작업이 가능하다”며 “시추공을 다 뚫고 원유·가스 매장량을 확인하는 데 빠르면 75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시추작업에 드는 비용은 3억원 남짓. 하루에 아파트 한 채가 날아가는 대형 작업인 만큼 시추를 앞둔 석유공사 기술진들은 초긴장 상태다. 혹시라도 ‘부정’을 탈까봐 직원들 사이엔 개고기 금지령까지 돈다. 서캄차카 광구는 4년 전 러시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당시 추정 매장량 37억 배럴로 한국이 확보한 유전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석유공사 측은 지난해 물리탐사에서 매장량이 최대 100억배럴을 웃돌 수도 있다는 결과를 얻고 더욱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한상근 사할린사업소장은 “만약 (원유가) 이만큼 나온다면 러시아에서도 최대급에 속하는 ‘대

박”이라며 “6만2680km²에 달하는 광구 면적과 넓은 대륙붕 형태를 볼 때 희망을 가질 만하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파 봐야 아는 석유개발 사업의 특성 상 실패 가능성도 반반”이라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서캄차카 유전개발 사업은 2004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 체결된 7개의 MOU 계약 중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이때 로즈네프트와 손을 잡은 석유공사는 2005년 가스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대우인터내셔널, 금호석유화학, 현대종합상사 등 6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로즈네프트와 설립한 공동운영회사 캄차트네프티가스는 네덜란드에 세운 지주회사 웨스트캄차카홀딩스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한국 측 컨소시엄은 이 지주회사의 지분 40%를 취득하는 형태로 참여했다. 러시아의 자원국유화 바람에 대처하기 위해 다소 복잡한 지분 형태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캄차카 해상유전 개발에 참여한 것은 한국 기업이 최초다. 세계 석유메이저들도 이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최대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이 최근 서캄차카 사업에 관심을 표명, 한국 컨소시엄을 긴장케 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 가스프롬 측은 아직 “한국 측 사업지분이나 참여도에 대해선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로즈네프트의 지분을 두고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영 주(駐)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는 “러시아는 2012년 APEC(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수도 모스크바가 아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극동개발 의지가 높다”며 “늘어나는 인프라 사업을 기회로 한·러시아 간 자원개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자원의 보고인 캄차카도 자원패권주의에서 예외가 아닌 셈이다. 하지만 캄차카 선점에 나선 한국에 기회는 적지 않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마가단한인회 측은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이 지역이 많이 쇠락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개발계획을 내놓고 있어 기대가 크다”며 “두 달 전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갈탄 개발을 위해 방문하자 마가단 주지사가 직접 현장을 안내하며 투자유치에 열을 올렸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개발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까지 극동 지역 개발에 231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공항 17곳과 항만 10곳을 개·보수하고 병원 8개를 신축하는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¹⁾

■ 러시아 광산업체, 북한 함경도 금광 개발 착수

러시아 극동 지역 광산업체가 북한의 금광 개발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마가단주(州) 광산 업체 ‘세베르니예 프리이스키’가 북한 함경남도의 금광 개발에 착수한다고 마가단 주정부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세베르니예 프리이스키의 모회사 ‘옴숙찬스크 광산지질회사’ 사장 안드레이 라쉬은 “러시아 기업이 북한에서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에는 귀금속을 포함한 지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이

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08052129001>(검색일:2021.11.29.)

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가단주 천연자원부 장관 블라디미르 미티킨은 마가단 광산업체의 북한 사업이 양국 협력 발전의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대표단은 앞서 마가단주의 ‘줄리에타’ 금광을 방문해 현지 채광 시설을 시찰하고 주정부와 북한 내 금광 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투자로 북한 내 지하자원을 개발해 이익을 나누는 사업이 대표적 협력 프로젝트로 논의되고 있다.²⁾

■ 마가단 주지사, 한국 기업 대표들과 사업 논의

세르게이 노소프 주지사는 한국기업인 KEM 회사와 룩산 글로벌회사와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기업가들은 냉동 컨테이너 생산 설비를 건설하고 여항을 재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이 회의에 마가단주 개발부 공사 사장과 마가단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고 마가단주 정부 언론사 IA 마가단 미디어가 보도했다. 대한민국은 마가단 지역의 주요 대외 무역 파트너 중의 하나이며, 이 지역의 전체 대외 무역의 약 30%를 차지한다.³⁾

■ 러시아 에네르 예술단, 평창 응원 내한공연

평창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전 대회 개최국인 러시아(마가단주)의 ‘에네르(Ener)예술단’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붐업 조성을 위해 첫 내한공연을 개최한다. 에네르 예술단은 오는 16일 대전 한남대학교 서의필 홀에서 첫 공연을 시작해 17일 전주 덕진공연예술회관, 18일 창원 마산 315센터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오후 7시부터 9시 까지 2시간 동안 펼쳐진다. 전일 무료공연으로 열리는 이번 초청공연은 ‘국제청소년예술단(단장 장광식)’의 창단 11주년 특별기획 ‘세계원주민전통민속춤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제청소년예술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의 세계화를 모토로 2005년 창단된 비영리예술전문법인으로, 취약한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희망을 주고 더 나은 사회공감대 형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방민족 가무예술단 ‘에네르’(추크치어로 ‘별’의 의미. 행복의 상징)는 마가단 콤포몰(공산주의청년동맹) 수상자이며 구 소련연방과 전 러시아연방, 그리고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캐나다, 폴란드, 스웨덴, 루마니아 등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한 전문예술단이다. 이 예술을 창단한 ‘리디아 발다예바’는 러시아의 공훈 예술가로 국가에서 수여하는 2등급 공훈 훈장을 받았으며, 러시아 연합문화부가 수여하는 ‘러시아의 혼’의 수상자이자 ‘마가단시 2014년 인물’상을 수상했다.

이들의 공연프로그램은 에스키모인, 추크치인, 코라크인 그리고 에벤족 원주민들의 춤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척 경이롭다. 그 경이로움은 민족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허

2) <https://www.yna.co.kr/view/AKR20150914156900080>(검색일:2021.11.29.)

3) <https://magadanmedia.ru/news/1201618/>(검색일: 2021.11.29.)

세를 부리지 않는 다양성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노래와 춤은 우리의 몸과 정신을 찬양하는 의식으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연출하며, 추크치인들이 보여주는 춤사위는 시적이고 운율적이며 손과 어깨, 머리와 엉덩이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관객을 매료시킨다. 춤은 배음(倍音) 창법에 맞는 독특한 춤사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연의 가장 중요한 악기는 오랜 세월을 걸쳐 전해져 내려온 원주민들의 전통악기 ‘야라르(Yarar)’이다. 또한, 북방민족들의 춤인 ‘에네르’는 고정화된 룰을 피하고자 노력하며, 공연 때 입는 구슬의상도 그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다. 공연자들이 입는 앞치마와 쿠홀란카(북방민족의 겨울용 털외투), 캄레이카(여름용 가죽 윷도리)의 모양은 다 달라서 비슷해 보이는 사람 또한 한 사람도 없다. 에네르 예술단은 젊은 안무가인 체르카노바 다리나(Cherkanova Darina)가 이끌고 있으며, 그녀가 합류하면서 안무구성이 뛰어난 민족전통양식을 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국제청소년예술단의 장광식(헤필드대 상담학 예술치유전공 교수) 단장은 “30여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올림픽에 러시아 에네르 예술단이 성공기원 축하 공연을 펼치게 된 것은 한·러 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지구촌 76억 가족들의 평화, 화합, 안정의 올림픽 개최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의 대회장직을 맡은 (주)유엔에프솔루션의 박기훈(기후환경학박사) 대표는 “광대한 러시아의 기백과 올림픽 정신이 깃든 혼이 담긴 멋진 공연에 기대가 크다”며 “국민 여러분의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들의 손을 잡고 평창의 열기를 팽창시키는 캠페인과 함께 새해에 힘찬 에너지를 만끽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⁴⁾

[그림33. 러시아 에네르 예술단]



출처: https://minkult.49gov.ru/press/news/index.php?id_4=31906 (검색일:2021.11.29)

4) 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53452§ion=sc5 (검색일:2021.11.29.)

<참고문헌>

극동 시베리아 개황, 2011.4, 외교부

코트라, 극동지역(연해주) 수산물 생산 및 수출입 동향, 2011

Бацаев И.Д.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о 20-х -
середина 60-х гг. XX в.). Магадан, 2007

Историческая хроника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бытия и факты
1917~1972 гг. Магадан, 1975

<https://aftershock.news>

<http://www.kolymastory.ru>

<https://ru.wikipedia.org/wiki/>

<http://www.pokurortam.ru>

<https://rosvuz.ru>

<https://ria.ru>

<http://www.magoblduma.ru>

<https://www.gotonature.ru>

<http://smorodina.com>

<http://www.pokurortam.ru>

<http://4dekor.blogspot.kr/2013/04/4.html>

<https://www.49gov.ru/government>

http://www.magoblduma.ru/structure/first_zam/

https://www.49gov.ru/our_region/municipalites/

<http://obzormest.ru>

<http://www.all-about-russia.ru>

<http://ec-rgo-sfo.com/interesnye-fakty>

<http://solex-un.ru>

<http://www.yunet-magadan.ru>

<사진 출처>

구분	출처
표지1	https://www.eastrussia.ru/news/magadanskaya-oblast-po-dobyche-zolota-perevypolnila-plan-predydushchego-goda/
표지2	http://samiye.ru/mesta/krupnye-oblasti-rossii.html
표지3	http://photo-kolymy.ucoz.ru/photo/3-0-2672-3
표지4	https://thenews.by/2016/12/01/magadan/
서문 1	http://gektar.nadv.ru/news/2048/
서문 2	http://liskionline.ru/news/federal/society/in-kolyma-will-perpetuate-the-memory-of-the-first-settlers/
서문 3	https://ria.ru/economy/20150416/1058908172.html#pv=g%3D1058908172%2Fp%3D1057035725
1	https://ur.bywiki.com/wiki/
2	https://www.gotonature.ru/1084-magadanskaya-oblast.html#home
3	http://www.kolyma.ru/magadan/index.php?newsid=18
4	http://www.all-about-russia.ru/nature/river/kolima_river/kolima_river.html
5	http://www.meteo-tv.ru/news/Kommentarii-sinoptika/Dalnevostochnaya-pogoda-v-pyatnitsu/?sphrase_id=701512
6	http://photo-kolymy.ucoz.ru/photo/10-0-1079-3
7	http://eh.lenin.ru/english/1ru/russia1/rus-div-fe.htm
8	http://eh.lenin.ru/english/1ru/russia1/rus-div-fe.htm
9	http://www.kolymastory.ru/glavnaya/panoramy/panoramy-istoriya-magadanskoj-oblasti/
10	http://ec-rgo-sfo.com/interesnye-fakty/253-pervaya-kolymskaya-geologorazvedochnaya-ekspeditsiya
11	https://aftershock.news/?q=node/380182&full
12	https://www.49gov.ru/government/governor/bio/
13	http://www.magoblduma.ru/structure/first_zam/
14	http://www.magoblduma.ru/generaldata/
15	https://ria.ru/vybor2012_hod_vyborov/20120304/584254291.html
16	http://solex-un.ru/energo/reviews/effektivnost-ekonomikidobывayushchih-regionov/obzor-2/magadanskaya-oblast
17	http://magfer.ru/wp-content/uploads/2014/07/slida2.png
18	http://www.kolymastory.ru/glavnaya/panoramy/panoramy-goroda-magadana/
19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Magadan_Oblast_numbered.svg
20	http://4dekor.blogspot.kr/2013/04/4.html
21	https://rosvuz.ru/university/3806-severo-vostochnyj-gosudars

	tvennyj-universitet
22	https://minkult.49gov.ru/press/news/?id_4=22846
23	https://www.49gov.ru/press/press_releases/index.php?id_4=1918
24	http://www.yunet-magadan.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01:-80-&catid=35:2009-08-26-02-18-13&Itemid=42&layout=default&zmien_width=szeroka
25	http://www.yunet-magadan.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01:-80-&catid=35:2009-08-26-02-18-13&Itemid=42&layout=default&zmien_width=szeroka
26	http://obzormest.ru/magadanskaja-oblast/item/557-maski-skorbi
27	http://www.arctic-info.ru/news/22-10-2015/-rosneft---prakticeski-polnost_u-vosstanovila-sistemy-meteorobludenii-v-arkticeskom-regione/
28	http://www.kolyma.ru/engine/print.php?newsid=57291
29	http://www.pokurortam.ru/02250853487515/
30	http://www.pokurortam.ru/02250855049415/
31	http://www.pokurortam.ru/01151425316314/
32	코트라, 극동지역(연해주) 수산물 생산 및 수출입 동향, 2011

<표 출처>

구분	출처
1	https://ru.wikipedia.org/wiki/
2	https://ru.wikipedia.org/wiki/
3	https://ru.wikipedia.org/wiki/
4	https://ru.wikipedia.org/wiki/
5	https://ru.wikipedia.org/wiki/
6	https://ru.wikipedia.org/wiki/
7	https://ru.wikipedia.org/wiki/
8	Centre for Monitoring Fisheries